

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

수신 각 언론사 정치부·사회부 담당

발신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
(담당: 나현필 010-5574-8925 fix.nhrc@gmail.com)

제목 [취재요청서] 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안창호씨 고발 및 진정 기자회견
"이제는 말도 아깝다. 사퇴하고 처벌받아라"

날짜 2025-08-01 (총 2 쪽)

취재요청서

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안창호씨 고발 및 진정 기자회견

"이제는 말도 아깝다. 사퇴하고 처벌받아라"

8월 4일(월) 오전 10시, 국가인권위원회

1. 취지와 목적

- 인권과 정의를 위해 애쓰시는 귀 언론사에 평화의 인사를 전합니다.
- 국가인권위원장으로 있는 안창호씨의 반인권적 행위가 연일 보도되고 있습니다. 성소수자 혐오표현 진정 건에 부당개입하여 소위원회 상정을 막고, 반동성애·내란옹호 활동을 한 지영준 변호사의 상임위원 추천, 강사 위촉에도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고 있습니다. 나아가 자신이 속했던 복음법률가회 소속 인사 등 반인권적인 인사들을 전문위원으로 대거 위촉하고 있습니다.
- 급기야 국가인권위원회 노동조합에서 안창호 위원장의 행태에 대해 제보를 받자 수십 건의 폭로가 나왔습니다. 양심적 병역거부자와 여호와의 증인에 대한 부정적 발언, 회의석상에서 성적지향을 묻는 행위, 중국인에 대한 혐오선동 등 온갖 제보들이 나왔습니다. 심지어 여성 직원에 대한 신체접촉과 여성들이 능력이 없어서 승진을 못한다는 성차별 발언까지 한 사실이 알려졌습니다.
- 한 사회의 동료시민으로서 최소한의 존중도 못받을 행태를 하는 안창호씨가 왜 지금도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있어야 하는지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.

이에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은 안창호씨를 직권남용, 인권옹호 업무방해 혐의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고발하고, 혐오와 차별 선동으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하는 기자회견을 8 월 4 일(월) 10 시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개최합니다. 나아가 이후 폭로되는 사안에 따라 추가고발·진정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.

- 귀 언론사의 많은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.

2. 개요

국가인권위원장 자격 없는 안창호씨 고발 및 진정 기자회견 "이제는 말도 아깝다. 사퇴하고 처벌받아라"

2025. 8. 4.(월) 오전 10 시 국가인권위원회

주최 : 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

사회 : 김덕진(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, 천주교인권위원회)

고발 및 진정 취지

- 김동현(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,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)
- 박한희(국가인권위원회 바로잡기 공동행동, 공익인권변호사모임 희망을만드는법)

발언

- 지오(차별금지법제정연대, 행동하는성소수자인권연대)
- 고운(무지개행동, 서울인권영화제)
- 동은(한국성폭력상담소)

※ 기자회견 후 진정서 및 고발장 제출

2025. 8. 1.

국가인권위 바로잡기 공동행동